

□꽃샘추위 언덕을 넘어□

해마다 겨울 지나  
새봄이 찾아오는 것

봄의 도래를 알리는  
진달래꽃 한 송이 피는 것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고통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

겨울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꽃은 순탄하게 피지 않는다

때로 한겨울 추위보다 더 양갈진  
꽃샘추위 언덕을 넘고서야

겨울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겨울나무는 아기 낳듯 꽃을 낳는다.

새봄이 오면 왜 가슴이 벅찬가  
봄꽃을 보면 왜 눈부신가

사뿐사뿐 쉽게 오는 봄  
스르르 쉽게 피는 꽃이 아니라

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봄이 오고 꽃이 피기 때문이다.

-좋은글중에서 -

□□□□□□□□

어제는  
눈과 얼음이 녹아 비나 눈이 된다는 우수였어요!

마지막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니  
따스한 봄날이 코앞까지 닥아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 내리는 우수처럼 그동안 얼었던 우리맘도 풀리고

특히 쑥쑥얼어 붙어 해결하지 못한 코로나등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술술 풀려나는 행복한 봄날  
이 우리앞에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2월에는 신선한 봄나물도 챙겨드시고

가벼운 운동도 즐기며 활력있는 봄맞이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